

계엄군 헬기사격 확인... 시민 목격담 사실로

리뷰 2017

④37년만에 열린 5·18 진실의문

발포명령자·암매장 진전

5·18특별법안 제정 추진

대선 공약·택시 운전사 한류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려진 어여쁜 너의 젓가슴/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쓰았지 왜 찢었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망월동의 부릅뜬 눈 수천의 꽃발 서러 있네...”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오월의 노래’다. 노랫말에서 제기한 의문처럼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의 계엄군은 부상하고 죽임당한 시민들을 트럭

에 싣고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왜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도청 앞에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한 수천 수만의 시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던 집단발포의 최초 명령자는 누구인가.

‘5월의 사제’였던 고(故) 조비오 신부가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에서 공개 제기한 ‘계엄군 무장헬기 기총소사’ 의혹을 포함해 37년간 풀리지 않았던 5·18 핵심의혹은 크게 3가지였다.

올 한 해는 여태 풀리지 않았던 집단발포 명령자, 헬기사격, 암매장 의혹 등 이른바 5·18 3대 의혹 규명으로 가는 ‘진실의문’을 열어젖힌 해로 불릴 만 하다. 새해 벽두인 지난 1월 12일 정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공식 감정보고서를 통해 계엄군 헬기사격을 공식화했다. 금남로 전 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100여개의 탄흔은 건물보다 높은 곳에서 쏘아만 형성될 수 있는 탄흔이라는 점(낮은 곳에서 쏘을 경우 허리 높이 콘크리트 난간을 뚫고 10층 내부 바닥에 탄흔이 생길 수 없다). 5·18 당시 이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였다. 국과수 보고서는 또, 발견된 탄흔이 부채살 모양으로 형성됐다는 점에서 헬기 기총소사(기관총 난사)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시위에 나섰던 광주시민을 적군으로 간주해 헬기를 투입, 기관총을 난사했다는 시민들 목격담이 37년 만에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자 및 암매장 의혹 규명 역시 37년 만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출범한 5·18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사격 명령체계 규명 등 진상조사에 나서 전두환 등 당시 반란군들이 집권 이후에도 ‘80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5·18 왜곡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내년 2월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국회 역시 ‘몰아치는 80년 5월의 진

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슬기롭게 설득할 수 있다면 이른바 내년 2월, 위원 15명에 사무처 직원 50명으로 구성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 최대 3년간 5·18 핵심 의혹 규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전근 같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37년간 굳게 닫혀있던 5·18 진실의문을 지금이라도 열 수 있었던 것은 5·18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성공, 암매장지 발굴과 진실 규명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5·18 연구자들 그리고 37년간 80년 5월의 진실을 원했던 광주·전남 지역민을 포함 전국의 양심있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물론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 에너지밸리 산단

오늘 첫 삽 뜬다

‘광주 에너지밸리 지방산업단지’가 21일 첫 삽을 뜬다.

광주시는 20일 ‘남구 대촌동에서 열리는 21일 광주 에너지밸리 지방산업단지 기공식’에는 윤창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장병완·송기석 의원 등 국회의원과 한정 등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94만4000㎡의 규모의 이 산업단지는 사업비 3000억원이 투입돼 2021년 준공한다. 광주시는 이 산업단지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책과 집적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분야, 에너지 저장시스템, 융복합 소재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 2조원과 5000여명의 고용 효과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광주시 남구 신공산업에서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하고 쓰레기 수거차량 등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미화원 여러분이 나라 주인... 웃는 나라 만들겠다”

김부겸 장관, 광주 청소업체 찾아 문대통령 격려 편지 전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환경미화원 2명이 숨진 광주를 찾아 이례적으로 문대통령의 격려편지와 정부 연말 선물을 전달했다.

2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남구 송하동 환경미화업체 신공산업(주)을 방문해 장비 등을 둘러보고 환경미화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신공산업(주)은 남구청의 위탁을 받아 쓰레기수거사업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전하는 격려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편지에는 ‘아침 길이 많이 추웠습니다. 따뜻한 살림에 가슴이 더욱 시리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요. 여러분이 웃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

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장장영 신공산업 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쓰레기 수거차 발판 문제,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김 장관에게 건넸다.

장 위원장은 “경찰이나 언론에서 차량 뒷범퍼에 설치된 발판을 밟고 일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발판에 매달리지 않고 선 청소를 할 수 없다”며 “미화원 1명이 한 번에 드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

가 각각 17kg, 25kg인데 대부분 나이가 많아 도보로 수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11월16일 청소차에 치어 숨진 서모(59)씨의 49세가 1월3일이다. 22살에 입사해 정년을 1년 앞두고 세상을 떠났지만 공로패 하나 없다”며 “우리를 단순히 환경미화원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 등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우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청소차 발판 문제 등은 무조건 금지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문화중심도시 조성 시민·예술가 정책 토론회

강기정 ‘광주성장 the CUBE’

성공적인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과 예술가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적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20일 광주시 동구 장동의 청년 문화공간인 코끼리협동조합 세미나실에서 ‘창조적 문화도시로 가는길, 연결과 공유의 창작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제8차 정책토론회를 했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기초연설을 통해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가지고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며 “연결과 공유의 플랫폼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창·제작공간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코끼리협동조합 서강원 이사장,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연수 수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장희정 책임 등 문화산업 분야 실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 토론회 이후에는 코끼리협동조합이 예술가들과 함께 개발한 융합콘텐츠를 시연하고 창작자 및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지난 8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창립 이후 ‘스마트시티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제로 활발한 정책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해야”

“코레일 부지 측각 매각”

박삼용 광산구의원 촉구

광주 송정역이 교통요충지로 거듭 나면서 교통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복합환승센터’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 무안 공항 경유 방침이 확정되고 광주송정역이 호남권 교통허브로 부상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지반 선정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열린 광산구의회 정례회에서 박삼용 구의원은 “코레일 은 더 이상 조

건을 달지 말고 부지를 측각 매각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등도 복합환승센터 착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인 코레일 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수년째 광주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광주시와 코레일 측이 그동안 토지매입과 매각만 합의한 상태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과 코레일 이 주차장 운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측은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1850㎡ 규모의 주차장 중 KTX 이용 고객을 위해 750㎡의 운영권을 타라’는 입장이어서 사업자 측과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불법 당원 모집 광산구청장 입후보예정자 등 2명 영장

전국 첫 사례

불법으로 당원 수천명을 모집하고 직원 수십명에게 금품을 물린 광주 광산구청장 입후보예정자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년 지방선거 국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9월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41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0월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등 150여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여 박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와 함께 단속 관련 서류를 파쇄한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주) 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분양 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차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유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